

2020  
10

#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 CONTENTS

### 02 COVER

제58회 종합학술대회

### 04 KAMT NEWS

2022년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 유치

### 05 KAMT NEWS

회원 종합검진 프로그램  
제휴 개시

### 07 NEWS

연말 수혈관리실 설치 의무화,  
1000병상 병원부터 먼저 적용

### 09 COLUMN

구본경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투고

### 제453호

####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 대한민국 전통 유전자분석 전문기업, 코젠바이오텍
- Bright Technology, right decision. 브라이텍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우주, 하성일  
기자 최현빈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최초 온라인 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 정세균 국무총리,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등 유관단체장 축하
- '팬데믹 시대를 대응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온라인에서 열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0월 9일, 10일 양일간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예정이었던 국제오프라인 학술대회로 2년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주관으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과 방역상의 문제로 대면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 학술대회 최초로 온라인으로 전환해 개최했다.

협회는 많은 회원들이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무려 7,169명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사전등록을 진행했으며, 개막식에는 동시접속자 수가 5,5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김홍주 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의 임상병리사 격려영상을 시작으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민원기 협회장,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 일본 JAMT 회장축사 영상 등이 협회 홍보대사인 윤희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소개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팬데믹 시대를 대응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주요 강의로는 ▲코로나19 검사 방법(제주대학교병원 박현철 회원) ▲코로나19 검체 채취 방법(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김민호 검진팀장) ▲감염관리 교육: 항생제 내성세균의 관리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김홍주 조직위원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원들이 화상으로 종합학술대회를 참관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동은 교수) ▲정확도기반 프로그램 판정 기준 및 해석과 조치(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윤여민 교수) ▲외부정도관리 정량검사 판정기준 및 부적합 결과 해석과 조치(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용화 교수) ▲정성검사 판정 기준 및 미판정 코드 해석과 조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경훈 교수) ▲외부특강(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석훈 교수) 등 회원들에게 필요한 깊이 있는 강의를 준비되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지정 필수이수교육, 중소병의원 학술세션 등 여러 회원들의 수요에 맞춘 강의들도 진행됐다.

신영숙 대회장(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회장)은 "준비과정서 여러 차례 대책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갑작스러운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에도 많은 회원 여러분 덕분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예년처럼 오프라인 행사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실험적으로 시도한 온라인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국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제59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주관으로 2021년 10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영숙 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장인호 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 JEJU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팬데믹 시대를 대응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코로나19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들께서 참석하시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수한 논문 발표와 강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인 만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준비

한 강자가 회원님들의 학술 발전에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내년 10월에는 제59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가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주관으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경주에서 직접 인사드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수상자

### 우수논문상

- 김 선 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상적 혈액화학 결과에서 전반적 퇴화 척도의 영향성
- 이 지 영 (울지대학교):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막 단백질 비교분석: high-speed centrifuge법과 reagent-base법
- 손 창 민 (해운대백병원): 부산지역 여성의 자궁경부질환과 HPV의 상관관계
- 이 태 복 (서울대학교병원): 세포 이동능력 분석을 위한 96-Well Plate 전용 Lab-Made Wound Maker
- 정 해 용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마이코박테리아 검출을 위하여 MGIT 양성 신호를 보인 세균에 오염된 검체 재처리 과정의 효율성 평가
- 하 성 일 (서울성모병원): CLSI M40-A2 기준에 따른 수송배지의 흡수 및 배출, 생존 효율, 회수율 평가
- 김 재 수 (단국대학교병원): Probiotics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억제효과와 항균제 내성

### 협회장 공로상

윤 석 관 (강원대학교병원)

### 학술장려상

류 주 남 (바른병원)

### 학술공로상

김 대 중 (동남보건대학교)  
박 희 열 (서울대학교병원)

# 대회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회장 신영숙입니다.

2018년 여름 2020년 제58회 종합학술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약간의 부담도 있었지만 또 다른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며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58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멋지게 준비하자고 제주도회 임원들은 한껏 사기가 충천하여 있었습니다. 원로 선배님들은 본인들이 이루지 못한 염원을 이루게 되어 한없이 기쁘시며 야심 없는 격려와 응원도 보내주셨습니다. 장인호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의 전격적인 지원, 그리고 16개 시도회장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 약속을 받으며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많은 세계인이 가보고 싶어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올레길 6코스에 위치한 중문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임상병리사들의 잔치를 벌여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준비한 많은 일들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협회도 많은 회의를 거쳐 심사하고 끝에 최초의 온라인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보자며 서운한 마음 달래봅니다. 처음 실시하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만나는 것조차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훌륭하게 준비해내시는 중앙회 장인호회장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내고 위상이 올라가길 기대하며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장 신영숙

# 축하의 말

전국의 임상병리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임상병리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방역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특히 저는 임상병리사 여러분의 해안과 역량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 재난 매뉴얼을 만들고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확진자가 전혀 없었던 1월 중순부터 미리 진단시약 개발을 시작했고, 8개월 넘게 밤낮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바이러스 진단에 사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K-방역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는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건강을 진단하는 임상병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동 영역도 소속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 무대로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 종합학술대회는 그런 변화에 맞춰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내외 임상병리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임상병리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인류의 건강을 위한 국제 협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상병리분야의 인력 양성 체계와 보건의료시스템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임상병리사들께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상병리사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인류의 열망은 앞으로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보건의료산업 역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입니다. 하시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

# 축하드립니다

CHEMISTRY DxC 880I,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www.choongil.com




##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밭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22년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 유치**

**축 제35회 IFBLS WORLD Congress 수원 SCC 유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22년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 유치**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세계임상병리사연맹(IFBLS) 이사회에 참가해 2022년도 총회 및 학술대회(IFBLS-2022 KAMT) 유치를 설명하고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IFBLS 학술대회는 40개국 9,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로, 다양한 연제발표, 포스터 발표, 소셜 프로그램, 의뢰기기 및 시약 전시회 등이 진행되며 해외 진단검사 전문가도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대회 및 총회의 정확한 일정은 캐나다에 위치한 IFBLS 연맹 사무국과 조율한 후 2022년 8월에서 10월 사이 중 확정할 예정이다.

장인호 협회장은 "IFBLS-2022 한국 개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창립 60주년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며 이외에 국내외 진단검사기술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와 함께 K-방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도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긴밀한 소통과 연계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IFBLS는 1954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창립된 단체로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외로 관련 국제기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인류의 건강 수호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IFBLS는 2년마다 개최되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006년 국내의 참가자 약 8,000명의 규모로 서울 코엑스에서 IFBLS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IFBL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Brightek**  
(주)브라이텍



**‘전 세계 점유율 압도적 1위’의 믿을 수 있는 염색성**

4분 30초의 초고속 염색 /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인텔리전트 클리닝 / 자동 시약량 모니터링 / Cytocentrifuge 기능 / 다양한 염색성 저장 및 편리한 사용 / 시간당 400매의 고속처리 / 폐수 용기 모니터링 / 염색데이터 보호 기능 / 추적관리기능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그람염색기 ■ 결핵염색기 ■ 할액염색기 ■ 세포염색기(New)

**Aerospray® Slide Stainer / Cytocentrifuge**



수입원: (주)브라이텍  
Tel: 02-948-8246 Fax: 02-948-7559 Email: cs.brightek@gmail.com Web: www.brightek.co.kr

협력사  
(주)성현메디텍 / 대왕약품 / 동방메디텍 / (주)동성메디칼 / 프라임메디텍 / 길랩 / (주)하에스

## 중앙회소식

### 광주보건대학교와 산학협약 체결

우리 협회는 지난 25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보건대학교와 다직종연계 실천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협약을 진행했다. 협회에서는 장인호 중앙회 협회장과 기원진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장, 김형락 전라남도임상병리사회장, 김상원 중앙회 총무이사, 신태호 중앙회 사무국 선임팀장이 참석했고, 광주보건대학교에서는 정명진 총장과 함께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시작 전 협회는 협회의 주요 활동 및 향후 계획, 광주보건대학교의 혁신지원사업 1유형 사업 및 다직종연계교육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임상병리검사학 및 보건외과과의 교육, 연구, 개발, 기술보급 등에 상호 협력하고 전문 분야별 인재양성 및 취업연계지원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광주보건대학교 다직종연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산학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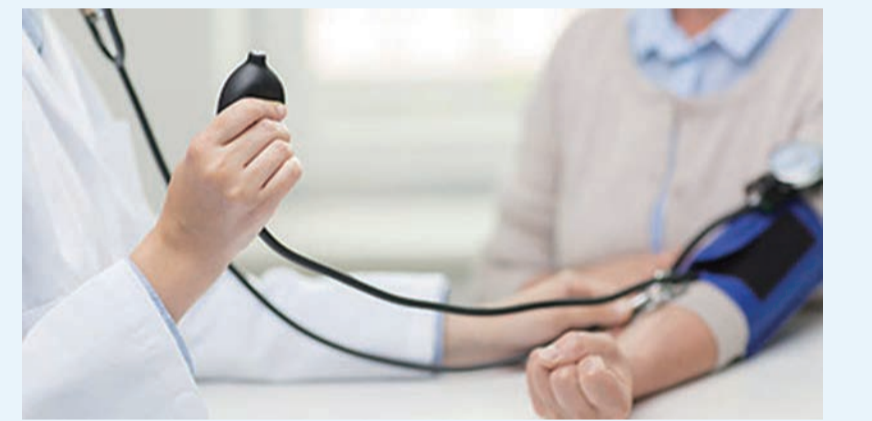


### 회원 종합검진 프로그램 제휴 개시

우리 협회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건강증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회 정회원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건강증진센터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정회원의 직계가족에게도 같은 수준의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 및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상담 문의(02-920-5491, 51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검진장비를 갖춘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장인호 협회장은 "이번 할인 혜택을 통해 많은 정회원들이 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회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0.09.01 ~ 09.30

- ▶ 9월 7일: 중앙회 정보통신부, 교육부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웨비나 학술대회 진행 시 민원에 대한 응대 방안이 논의됐다.
- ▶ 9월 7일: 종합학술대회 초록집 제작 및 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학술부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 ▶ 9월 8일: 제58회 종합학술대회 학술분과위원회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종합학술대회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 ▶ 9월 9일: 제58회 종합학술대회 학술후원상 심의위원회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우수논문상 수상자 및 관련 학술프로그램 기획안이 논의됐다.
- ▶ 9월 10일: 제1차 제454차 상임이사회가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안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고시개정안 의견서 제출 ▲회원복지사업 실시 ▲2020년 시도회 및 분과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설명회 개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또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회원 총남도회 편입 ▲제규정 개정 및 제정 의견 등이 논의됐다.
- ▶ 9월 12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협회 예산편성 운용규칙에 관한 정책과제 회의가 진행됐다.
- ▶ 9월 16일, 21, 22, 23일: 제58회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를 위한 실무자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0.09.01 ~ 09.30

- ▶ 9월 1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건강증진센터 관계자와 업무협약에 관해 1차 회의를 진행
- ▶ 9월 3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실무자 회의를 진행.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 방식 및 준비일정에 대해 논의
- ▶ 9월 7일: 생리기능검사 TF 소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
- ▶ 9월 8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진행. 제58회 종합학술대회 운영 방안을 공유
- ▶ 9월 9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
- ▶ 9월 11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초음파검사 관련 업권 정책간담회를 협회 자문 변호사인 문병윤 변호사와 함께 진행
- ▶ 9월 12일: 세계임상병리사연맹(IFBLS) 정기이사회를 화상을 통해 참석함. 2022년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발표함. 이후 투표를 통해 수원컨벤션센터 개최를 확정함
- ▶ 9월 14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건강증진센터와 진행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 ▶ 9월 17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종합학술대회 개·폐회식 운영에 대해 회의를 진행
- ▶ 9월 19일: 협회관 대회의실 및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협회관 TF 위원회 회의를 진행함. 이후 같은 장소에서 제166차 정기이사회를 진행
- ▶ 9월 24일: 화상으로 제6차 의료기사총연합회 정기회의에 참석
- ▶ 9월 25일: 광주보건대학교에서 열린 협회-광주보건대학교 업무협약식에 참석
- ▶ 9월 26일: 협회관 2층 서울시회 강의실에서 진행된 제58회 종합학술대회 개·폐회식 리허설에 참석

## 2020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시도회·분과학회 보수교육(7개 분과학회) 일정

### 시도회 보수교육(16개 시도회)

**시도회 1차 보수교육 : 10.31. (토)    시도회 2차 보수교육 : 11.21. (토)    시도회 3차 보수교육 : 12.12. (토)**

분과학회	보수교육일	교육시간	이수시간	필수과목
조직세포검사학회	10월 31일	13:00~19: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임상생리검사학회	11월 07일	13:00~17:00	4시간	미운영
임상화학검사학회	11월 14일	14:00~18: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임상검사정보학회	11월 21일	13:00~17: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임상미생물검사학회	11월 28일	13:00~19: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임상면역검사학회	12월 05일	14:00~18: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조직세포검사학회	12월 05일	13:00~17: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공동주관 하이라이트 교육(웹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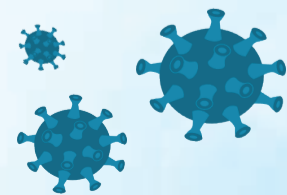
교육명	교육일	교육시간	수탁인증
대한임상병리사 정도관리협회 공동주관 하이라이트 교육	11월 28일	14:00~17:00	기관수탁인증



##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주)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 국내 최초 개발 및 공급

- 2020년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1호)
- 2015년 메르스
- 2009년 신종플루



## 씨젠의료재단, 2020 대한민국 혁신기업대상 의료서비스 부문 6년 연속 수상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 9월 18일 「2020 대한민국 혁신기업대상」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씨젠의료재단이 실시하는 질병검사는 진단의학검사 · 분자진단검사 · 진단병리검사 · 연구용검사 등 4,000여 가지에 이르며, 특히 분자진단 검사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ONE DAY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체 접수부터 결과 보고까지 하루 안에 제공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분원 수준의 설비와 인력을 갖춘 지역 검사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2014년 6월 부산경남검사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대구 경북검사센터, 6월 광주호남검사센터를 개원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도 수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2019년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SKL 검사센터'를 개원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부터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감염병 의심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분자진단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방역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천종기 이사장은 "신종 감염병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진단검사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게 되었다"면서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질병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하여 혁신을 거듭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진단 도구 정식허가 임상평가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진단 도구(진단키트)의 국내 · 외 허가 임상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8일(목)부터 검체 보유기관과 진단 도구 개발기업 간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정식허가용 임상적 성능평가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섭외해왔으나, 대다수 기업은 코로나19 양성 검체의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기관 섭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협력 기관 간에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신속한 제품 검증과 임상평가 진행을 통한 인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진단 도구 수출용 허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지원범위를 정식허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9월 중 협력 기관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호흡기, 혈액 등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19 검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임상평가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및 수탁 검사기관 연합체(컨소시엄) 6개소를 선정하고 지원 중이다.

### 〈코로나19 임상평가 협력 기관〉

순번	기관명(참여기관)	소재지
1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남/대전/광주
2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3	전북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전북/서울
4	녹십자의료재단	경기
5	서울의과학연구소	경기
6	이원의료재단	인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10월 8일(목)부터 22일(목)까지 2주간 1차 신청 접수를 받아 협력 의료기관 연결을 진행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11월 중 추가 연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hidi.or.kr/device)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독감 동시유행 가능성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국산 진단 도구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연결 서비스를 통해 우리 진단도구의 신속한 검증과 허가 획득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연말 '수혈관리실' 설치 의무화, 1000병상 병원부터 먼저 적용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수혈관리실 설치 의무화가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일부에 한해 먼저 적용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혈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 설치 기준인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이 구체화됐다.

설치 의무화는 3단계로 나눠져 진행된다. 병상 수가 10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2만단위 이상인 경우 혈액관리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해야 한다.

2021년 7월부터는 병상 수 5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 사용량이 1만 단위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화가 적용된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7월부터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경우 전년도 혈액 사용량이 5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혈액 사용량은 수혈량과 폐기량 등 의료기관에 입고된 모든 혈액제제 양을 의미한다. 혈액원과 함께 혈액 공급량·재고량·폐기량 정보 등이 담긴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화 기준도 의료기관마다 단계별로 적용된다. 혈액원으로부터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를 1000단위 이상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법 시행과 함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전년도 전체 혈액제제를 500단위 이상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2021년 12월부터, 100단위 이상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2022년 12월부터 적용된다. 공급받은 전체 혈액제제를 1단위 이상 사용하거나 재고로 보관하거나 폐기한 의료기관은 2023년 12월부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돼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혈액관리법은 수혈 안전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적정 혈액보유량이 0~1일분까지 떨어져 혈액수급위기수준이 심각해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따른다.

수혈관리 위원회·실은 ▲수혈 혈액 보관·사용·폐기 ▲수혈 관련 자료 수집·분석·평가 ▲수혈 적정성 지표 관리·평가 ▲수혈 관련 교육 등을 심의·담당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수혈관리실에는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를 각각 1명 이상 2명 이상, 이 중 1명은 수혈관리실에서 전담근무해야 한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생활수기 공모전



## 공모주제

- 코로나19와 관련한 후기 및 위험한 순간
-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화된 일상
- 코로나19 감염체험사례(본인 및 가족 등)
- 그 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코로나19 관련 내용

## 응모자격

- 임상병리사

## 응모기간

- 접수: 2020.9.1.(화) ~ 2020.11.30.(월) 24:00까지
- 발표: 2020년 12월 초순,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

## 관련문의

- 02-3291-5435 (내선 2번)

## 참여방법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협회 홈페이지 > 협회소개 > 공지사항)
- 우편: (028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4층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 전산홍보팀 앞
- 전자우편: kamtreporter@daum.net

## 출품규격

- 수량: 1인 1점(팀·공동작업불가)
- 규격: A4용지 10매 내외, 200자원고지 30매 내외 (바탕체 13p, 줄간격 160%)

## 제출

- ① 한글(hwp)양식의 참가신청서
  - ② 작품 한글(hwp)파일
  - ③ 활동사진
- ※ 우수상 이상 수상작의 경우 저작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상내역

구분	인원	상금
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5명	각 10만원

※제출 작품은 타 공모전에 당선되거나 출판되지 아니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허구의 수기로 밝혀질 경우 수상을 무효 처리함



회원 여러분,  
“임상병리사국가시험 문제”에 넣든가 해야지,  
검사 및 자격 용어를 **몽땅 외우세요!!!**



글: 구본경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부위원장, 삼성서울병원)

### ※ 배경

임상병리사를 영어로 Clinical Pathologist로 표현한다면, 본의 아니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임상병리과 전문의)로 정의되기에 “자기 소개, 명함 제작, 논문 작성, 공항 수속” 등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격 관련 영어로 신분, 수준 등에서 엉뚱한 일(?)을 겪을 수 있기에 검사 및 자격 관련 고유명사를 정리해 본다.

### 1. 10개 검사 용어

- 1) 검사 (검사실검사의 통상적 용어) : Laboratory Test
- 2) 의학검사, 임상의학검사, 진단의학검사 : Laboratory
- 3) 임상검사 (임상병리검사 또는 임상검사의학 검사의 통상적 용어) : Clinical Laboratory Test (O); Clinical Test (X), Clinical Trial (X)
- 4) 임상병리검사 : Clinical Laboratory Test, Clinical Pathology Test
- 5) 진단검사 (진단검사의학 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신경 진단검사, 안과 진단검사 등의 넓은 의미) : Diagnostic Test
- 6) 진단검사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통상적 용어) : Diagnostic Laboratory Test, Diagnostic Test  
※ 진단검사의학 검사 : Laboratory Medicine Test, Test of Diagnostic Laboratory Medicine 으로 직역하여 표현하지 않음 (X)
- 7) 병리검사 : Pathology Test
- 8) 핵의학체외검사 : Nuclear Medicine In Vitro Test
- 9) 생리기능검사 : Physiological Function Test
- 10) 신체검사 (신체계측) : Physical Measurement

※ 직역하면 Clinical Pathology Technologist, Clinical Pathology Technician 이지만 의학계열에서는 사용하지 않음(X)  
※ 수의학계열에서 수의임상병리사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Technician 사용함

3) 의사 : Physician, Doctor (의사, 박사), Medical Doctor

4) 일반의 : General Physician, General Doctor

5) 전문의 : Specialist Physician, Specialist Doctor  
※ Medical Specialist (X), Special Physician (X), Special Doctor (X)

6) OO과 전문의 : Specialist of OO, OO-logist

7) OO 의사 : OO Physician, OO Doctor

8)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임상병리과 전문의) : Clinical Pathologist (보건복지부 공식 용어)

① Laboratory Physician, Laboratory Doctor, Clinical Laboratory Physician, Clinical Laboratory Doctor 가능

② 가정의학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핵의학과 전문의 영문은 Specialist of OO Medicine 으로 표현하지만, 검사의학 전문의(임상검사의학 전문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는 Specialist of Laboratory Medicine 으로 표현하지 않음

③ 유럽연합은 검사의학 전문가(의사, 약사, \*과학자)의 경우 Specialist in Laboratory Medicine 으로 표현(\*과학자는 생화학, 미생물학 전공자이며 일부 국가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임상병리사를 포함)

④ 미국은 임상검사 전문가의 경우 의사, 과학자 외 임상병리사도 포함되기에 Clinical Laboratory Specialist (Medical Laboratory Specialist) 로 표현

9) 병리과 전문의 : Anatomical Pathologist, Pathologist

10) 의료인, 보건의료인, 전문가: 의료인 Medical Personnel, 보건의료인 Health care Personnel, 의료 전문가 Medical Specialist, 건강 전문가 Health Professional

### 2. 10개 자격 용어

- 1) 의료기사 :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O), Medical Technologists (X), Medical Technicians (X)
- 2) 임상병리사 : Medical Technologist (O)  
※ [동어]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 대한민국 이름의 뜻: 나라 이름은 그 나라의 문화다

글: 편집부

뉴스를 보면 자막에 美, 英, 佛 등과 같은 한자어가 나올 때가 있다. 뉴스에서는 세계 각 나라를 한자어를 통해 표기하는데 美는 미국을, 英은 영국을, 佛은 프랑스를 뜻한다. 왜 USA(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이라고 표기할까?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라서? 이런 우리나라 언론사의 작풍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영향이다. USA가 미국이 되고 잉글랜드가 영국이, 베트남이 월남으로 불리는 건 모두 중국어와 관련이 있다.

영국은 나라를 뜻하는 國(國) 앞에 英(英)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영의 중국어 발음 '잉'이다. 잉글랜드(England)의 첫 발음과 같은 英을 써서 영국이 된 것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를 중국어로 읽으면 '파란시(佛蘭西)'가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란서'다. 미국은 USA, 아메리카인데 왜 '미국'이 됐을까? 아메리카(America)란 단어에는 강세가 있는데 아(A)가 아닌 메(me)에 강세가 있다. 그리고 'me'는 중국어로 메이(美)가 돼서 USA는 미합중국(美合衆國), 즉 미국(美國)이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나라 이름은 무슨 뜻일까? 여전히 우리 나라의 국호를 그저 한국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 이름의 유래는 조선시대 고종 때 만들어진 '대한제국'에서 시작된다. 외세의 간섭이 심해지던 조선 말기, 고종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황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조선'이라는 국호가 사대주의로 정해졌기 때문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에게 나라 이름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이때 명나라가 선택한 이름이 '조선'이었다. 조선은 이름부터 사대주의의 국가였던 것이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와 세자, 그리고 고위급 인사들(사진 출처: 중앙일보)

대한(大韓)의 대(大)는 대명제국, 대일본제국 등 제국 앞에 관용적으로 붙이던 접사였다.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관용적으로 '대'를 넣은 것. 그리고 民國(民國)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의 이름은 한(韓)이었다. 이 당시 만연했던 상징적인 믿음은 황제국의 이름은 한 글자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 당, 송, 원, 명, 청 등 중국의 국호는 항상 한 글자였고 일본, 돌궐, 여진, 흉노 등 '오랑캐'로 분류되던 주변 국가 이름들은 모두 두 글자였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황제국이라면 한 글자 국호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마침 한(韓)과 조선의 조(朝)의 생김새가 비슷했고

그렇게 '韓'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다.

'한(韓)'이라는 이름은 고대 삼한(三韓)에서 유래했다. 조선은 고조선의 정동을 이어 국호를 가지게 되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은 왕위를 빼앗긴 후 한반도 남쪽으로 도망쳐오는데 여기서 건국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나라들이 '한(韓)'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당시 삼한은 세계의 변방에 위치한 국가였지만, 문화적으로는 당대 최고 수준이었던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삼한을 계승하기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황제국의 이름으로 탄생한 대한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시기를 겪게 된다. 일본은 이때 국호를 '한'에서 '조선'으로 바꿔버린다.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이 사용하던 '한'이라는 국명을 조선왕조가 사용하던 옛 이름인 조선으로 고친 뒤 일본의 일개 지방 이름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이후 1945년 광복을 맞게 되고 우리는 다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초반에는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한'이라는 이름이 망국의 군주인 고종이 지은 이름이라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고, 삼한 시대가 자랑스러운 시대 아니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Korea'라는 영문 명칭이 광범위하게 통용된 만큼 국호를 '고려'로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1948년 열린 제헌국회에서 30명의 제헌의원으로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으나 '민국'이라는 단어는 개별적인 단어로는 공화국에 밀려 쓰지 않는 말이 되었다. 때문에 요즘은 '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약자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화교들이 '중화민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고 줄여 쓰는 약칭 방식을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에게도 널리 퍼트리며 '한국'이라는 약칭이 득세했다.

그러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줄임말인 '한국'보다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법전이나 교과서 등의 공식 문서에서 보이는 느낌이었다. 2002년 월드컵 이후부터는 방송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자리잡았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으로 표시됐다.

# 2020년! 인증샷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20년 10월 26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 [제452호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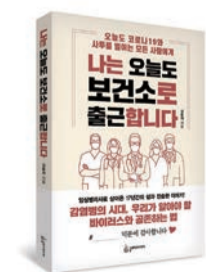
- 변성순 회원: 이 칼럼을 처음 봤을 때 머리가 땀~ 하고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참 피하게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틈틈이 영어공부 한다며 영어책을 뒤적거렸는데 제 직업 하나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빨개지네요. 사실 지방에서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협보에 나오는 기사들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 칼럼의 '좀 제발 헛갈리지 마세요!!!' 부분이 꼭 저에게 말하는 듯 해서 가슴이 쿡쿡 찡찡하네요. 이제 절대 헛갈리지 않을게요!
- 전세현 회원: 저는 이번 호에서 '다시 보는 세계지도: 지도 속 나라들의 실제 크기' 라는 기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보아 왔고 알고 있는 세계지도가 실제 크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세계 지도 속의 우리 나라는 많이 작운데, 실제로는 우리 나라 면적이 세계 상위 50%안에 드는 결코 작지 않은 나라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 기능을 가진 지도에 서구적 우월성이 들어가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실제 크기에 근거한 피터스 도법이 도입된 편견과 선입견이 배제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그린 지도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우수한 나라일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아주 저력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회원동정

김 봉 재(가평군보건의소) 회원이 <나는 오늘도 보건소로 출근합니다> 책을 출간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보건소로 출근합니다>는 17년간 국립병원과 보건소에서 근무한 저자가 신종 감염병 대처 업무를 맡으며 느낀 점을 솔직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매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창립 30주년**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ical.com](http://www.segenemical.com)